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주일 예배 봉사위원

	12. 20	12. 27	01. 03
대 표 기 도	이수현 집사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성 경 봉 독	이수현 집사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헌 금 위 원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안 내 위 원	유미경 집사	유미경 집사	이수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대강절 절기입니다. 금주는 셋째 주로 사랑을 상징하며, 보라색 초를 밝힙니다.
2. 성경 읽기-영의 양식으로 삼시다(겔37~48장, 단1~6장)
3. 제직회- 오늘 18시 zoom을 통해서 결산제직회로 모입니다.
4. 성경 일독 마치신 분들은 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성탄, 신년예배-12시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브레멘교회협의회 새 규칙 적용)
6.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주일예배는 정해진 시각,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YouTube에서 브레멘한민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교우동정

생일	김대철 형제(17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3.대강절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새번역) 다같이
- * 찬 송 Gemeindelied 104장 다같이
- 기 도 Gebet 유미경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출20:15, 신5:19 유미경 집사
(2.Moses 20:15, 5.Mose 5:19)
- 설 교 Predigt 도둑질하지 말라! 이상호 목사
- * 찬 송 Gemeindelied 422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이수현 집사

신뢰를 상실한 그리스도인

1992년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Fried Green Tomatoes'를 본 적이 있습니다. 1930년 미국 남부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여주인공 잇지는 어느 날 느닷없이 살인범의 누명을 씁니다. 그녀는 결코 살인한 적이 없음에도 모든 정황은 그녀를 살인범으로 내몰습니다. 법정에서 무죄를 항변해 보지만 이미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증언대에 선 그 지방 목사님이 잇지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즉 사건 당일 밤, 잇지는 부흥회에 참석하고 있었으므로 절대 살인범일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사의 증언과 동시에 문제의 사건을 죽은 자의 실수로 인한 단순 사고로 판정하고 재판을 중단하고 잇지를 풀어주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모든 사람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목사의 증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과 6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 사역자들은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사회의 빛이요, 길잡이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신뢰를 상실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신실한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과 더불어 4 / 이재철 목사
(100주년 기념교회 원로)

* 기도는 산산이 깨져 흩어진 창조 세계의 파편들을 다시 끌어 모아 맞춰 나가는 일이다. - Jacques Ellul(프랑스 사상가) -